

2019년 어려움 예상되지만 금속노조 중심으로 투쟁하자!

* [지부 조합원 설문조사] 2/14일 ~ 2/28일, 877명 참여

사업장 경영상태 나빠질 것으로 예상

지부 설문조사에 877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57.8%의 조합원이 경영상태가 나빠질 것을 우려했다. 특히 25.7%는 매우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약간이라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 인원은 16.5%에 불과했다. 그로 인해 복지축소, 단협개약 등의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46.9%)했고, 인원 구조조정에 대한 예상(39%)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 절실!

조합원들은 제조업 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인원 유지(40%) 요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26.6%)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조합원들은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중심으로 제조업 산업정책 요구를 갖고 대정부 투쟁을 강화(43.7%)하자고 주문했다. 현 경제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안의 투쟁 뿐만 아니라 대정부 투쟁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다수를 차지했다.

중앙교섭, 지부교섭 통해 요구안 쟁취한다

노조에서 마련한 2019년 임단협 요구안 중 조합원들은 주52시간제 실시 및 부족인원 정규직 충원(18%), 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원(17.7%), 하청 및 도급회사의 노동기본권 보장(16.2%),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 보장(13.6%)을 중요한 요구안으로 꼽았다. 금속산업 최저임금과 총고용 보장 요구는 올해 금속노조 중앙교섭과 지부교섭에서 다룰 예정이며, 중앙교섭과 지부교섭에 불참하는 사업장은 지회 대각선 교섭에서 다루게 된다.

지역의제에 대한 공감을 위해 지부의 노력 필요

지부는 작년부터 사업장 임단협과 더불어 지역의 모든 노동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요구안을 걸고 지자체 및 지역 노동청과 투쟁했다.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된 요구안 7가지를 제시했고 협의를 지속해왔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였다. 올해도 작년의 지역의제 요구를 이어받아서 투쟁해나갈 예정이다. 조합원들은 작년 지역의제 투쟁에 대해 들어봤지만 잘 모르거나(38.1%), 전혀 모르겠다(31.5%)는 의견이 다수였다. 올해 지부 차원에서 지역의제 투쟁에 대해 조합원들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문재인정부 노동개약 총파업으로 막자!

최근 정부의 노동정책이 급격히 자본 편향적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법 개약, 노조법 개약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한없이 후퇴시키고 있다. 조합원들도 최저임금법 개약으로 사업장에서 각종 꿈수가 난무할 것(67%)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추진 중인 노조법 개약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44.1%), 전혀 모르겠다(31.3%)는 답변이 75.4%에 달했다. 노동자들은 알지도 못한채 정부의 노동개약은 치밀하게 진행 중인 상황이다. 노동개약을 막기 위한 투쟁으로는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을 벌여야 한다(33.3%)는 의견과 사회적 여론에 대응하는 투쟁을 강화하자(31.8%)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민주노총의 강력한 투쟁과 사회적 여론을 선도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